

#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3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3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3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3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3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5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5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5
III. 경영참고사항 .....	6
1. 사업의 개요.....	6
가. 업계의 현황 .....	6
나. 회사의 현황 .....	8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1
□ 이사의 해임.....	11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3년 7월 3일

회 사 명 : 한국전력기술(주)  
대 표 이 사 : 안 승 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전 화) 031-289-3114  
(홈페이지) <http://www.kepco-e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기획마케팅본부장 (성 명) 김 종 식  
(전 화) 031-289-4034

# 주주총회 소집공고

(2013년도 제1차 임시)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2013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소액주주님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3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2. 장 소 : 한국전력기술(주) 용인본사 4층 창덕궁 회의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나. 의결사항

○ 대표이사 사장 해임의 건

### 4. 기 타

가.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서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의결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 및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께서서는 주주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강경성 (출석률: 0%)	정택렬 (출석률: 0%)	김종호 (출석률: 100%)	최경수 (출석률: 100%)	김재원 (출석률: 100%)	이승훈 (출석률: 100%)
			찬 반 여부					
1	2013.2.14	의결1. 코트디부아르 지사 설립(안) 의결2. 정관 변경(안) 의결3.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의결4. 제38기 결산(안) 의결5. 제38기 영업보고서(안) 의결6.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보고1. 201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2. 201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 고에 대한 평가	불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13.3.12	의결1. 이사보수한도 승인(안) 의결2. 감사보수한도 승인(안) 의결3. 제 38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변경(안)	불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13.4.17	의결1. 사장 경영계약서(안) 의결2. 임원연봉규정 개정(안)	불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13.6.7	의결1. 2013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의결2. 주주명부 폐쇄(안) 의결3. 사장 직무정지 의사 및 직무대행자 선임 확인 (안)	불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13년 6월 30일까지의 이사회임.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기타비상무이사	3	-	-	-	-

사외이사	3	-	36,000,000	12,000,000	직무활동비 월 200만원/인
------	---	---	------------	------------	--------------------

※ 2013.6.30 기준

※ 사외이사에게 직무활동비 지급(정관 제43조3항-사외이사에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기술용역	한국전력공사 (최대주주 본인)	2013.01.01 ~ 2013.03.31	255	3.24%
기술용역	한국수력원자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013.01.01 ~ 2013.03.31	134	1.70%
기술용역	한국수력원자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013.01.01 ~ 2013.03.31	83	1.05%

\* 비율은 최근 사업년도말(2012년도) 매출총액(7,856억)에 대한 비율임

\* 거래금액은 부가세 별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매출액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한국수력원자력(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2013.01.01 ~ 2013.03.31	476	6.06%

\* 비율은 최근 사업년도말(2012년도) 매출총액(7,856억)에 대한 비율임

\* 거래금액은 부가세 별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매출액

### III.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1) 엔지니어링업의 특성

○ 당사는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로서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수화력발전소의 설계, 발전설비 O&M, 플랜트 건설사업 및 PM/CM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설계사업의 경우 국내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하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독점적으로 맡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해외 원자력발전소 설계사업도 기술 인력 지원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화력발전소 설계사업의 경우 화력발전소 및 복합화력발전소 설계에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시장은 한국전력공사 계열사 뿐만 아니라 민자 발전소 설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설계의 해외사업은 회사 단독수주 또는 국내 유수의 시공업체 및 한국전력공사 그룹과 협력 수주로 매출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자력발전 및 수화력발전 플랜트 설계 사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매출은 전력산업 및 원자력산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1) 원자력산업의 특성

○ 원자력산업은 광범위한 산업기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주-설계-주기기 제작-시공-연료공급-유지보수’로 나뉘는 Value Chain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Value Chain으로 인해 원자력산업은 발전소 운영, 엔지니어링, 설계, 기자재제작, 유지보수 등과 같은 다양한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는 원자력 주기기(NSSS) 설계와 발전소의 종합설계(A/E : Architect Engineering)로 나뉘어집니다. 원자력주기기에 대한 설계의 경우 원자력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술로서 당사는 이에 관하여 국내 독점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기기 설계기술은 세계적으로 몇 개의 거대 원자력 그룹들이 독점적으로 보유한 핵심기술로서, 각 회사마다 고유한 노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종합설계 역시 중요한 기술이며, 국내시장에서 당사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는 당사와 비슷한 발전소 종합설계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원자력발전 설계 및 엔지니어링 산업은 특정 국가의 원자력발전 기술 및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원자력계통 주기기 및 발전소의 자체 설계능력을 보유하지 않고서는 독자적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한국 독자 모델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자력발전 설계 산업은 수화력발전소의 엔지니어링과도 관계가 있으며,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와 같은 차세대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전력산업과 건설/시공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원자력발전 설계 및 엔지니어링 산업에서도 주기기 및 원자력계통(NSSS)과 관련된 설계 부분은 원자력산업의 핵심적인 기술이며, 이를 보유한 업체들은 세계적으로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발주-설계-주기기제작-시공-연료공급-유지보수’의 Value Chain을 수직계열화하며 거대화되는 해외경쟁업체들도 원자력발전소 종합설계의 많은 부분을 다양한 외주업체들에게 맡기는 것과는 달리 주기기 및 원자력계통 설계는 핵심사업으로 분류하여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설계 및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우 당사가 독점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그룹의 컨소시엄 참여자로서 국내 및 해외 원자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2) 화력 플랜트 설계 및 엔지니어링 산업의 특성

○ 국내 화력 플랜트 설계 및 엔지니어링 산업은 민자 사업자들과 과점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의 발주자들은 한국전력공사 혹은 그 계열사가 대부분이며 민간 발주자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이러한 한국전력그룹 위주의 발주 체제는 계열사 중 하나인 당사의 경우 수주에서의 우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석탄 및 복합화력발전소 설계 및 엔지니어링 사업은 대부분 전력그룹사 또는 국내 건설 시공사와 협력하여 수주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 EPC Turn-key 사업의 수주를 위하여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2) 업계의 성장성

#### 1) 원자력산업의 성장성

○ 세계적으로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방법으로서의 원자력발전은 2008년에 접어들며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2011년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007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유가입니다. 이에 각국 정부들이 화력자원에 의존하던 전력수급 구조에 대한 변화를 근본적으로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유가는 2008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하여 급락하였으나, 2009년 2분기 다시금 회복하며 언제든 각 국가의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시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원자력발전은 발전단가가 kWh당 50원에 미치지 않는 경제성 있는 발전형태 중 하나이며, 국내 전체 발전 비중은 29.6%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경제성이 우수합니다. 초기건설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안정적인 연료수급과 가동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차 국제적인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입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던 지구온난화방지 회의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6가지 종류의 감축 대상 가스들을 1990년의 5.2% 이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교토의정서의 일환으로 각국의 정부들은 전력수급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방식의 발전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가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자력에너지는 화력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이의 공백을 메우며 그 환경성에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원자력발전설비의 노후화입니다.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미국 및 유럽의 국가들은 추가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았으며, 기존 시설의 노후화는 대체발전소의 건설 및 교체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및 경제성을 고려할 경우,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발전방식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각국의 정부들은 노후화된 원자력발전 전력량을 신규 원전의 건설로 대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제성, 환경문제와 기존 원전의 대체문제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산업은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전 세계적인 규모의 신규 건설은 “원자력 르네상스”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인 원전 산업의 부흥기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2) 화력발전 설계 및 엔지니어링 산업의 성장성

○ 화력 및 복합발전소 관련 산업은 그동안 미국 및 유럽 선진국에서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평가 받으며 다소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들의 본격적인 경제 성장으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증가 추



세는 값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는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의 문제로 인해 다른 전력생산 방안을 찾지 못한 이들 국가들에게 아직 화력 및 복합에너지 발전 방식은 매력적인 발전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 (3) 경기변동의 특성

○ 발전 및 에너지 부문 엔지니어링 산업은 전력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전력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급격한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경기변동의 영향이 크지 않은 산업군에 속합니다. 또한 발전소 건설공사는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최장 10여년의 건설공기를 필요로 하므로 경기의 단기적 변동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경기침체 시에도 공공부문 플랜트 건설계획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경기변동보다는 세계 각국의 정부 정책 흐름과 방향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 (4) 경쟁요소

○ 원자력발전 설계 및 엔지니어링의 핵심경쟁요소는 무엇보다도 고유 모델의 원자로 노형에 대한 설계가 가능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로 노형을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은 AREVA, Westinghouse/TOSHIBA, GE 등 소수의 업체들만 존재하며 진입장벽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자체 노형 모델의 설계가 가능한 설계기술 이외에도 실제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기술요소에 대한 Know-how 또한 중요한 경쟁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는 가격경쟁력 또한 경쟁요소의 집합적인 개념으로 산업 내 성장 및 경쟁에 필수요소이며 핵심적인 사항은 고급 경험 기술을 보유한 우수인력의 확보입니다.

#### <한국전력기술(주)의 경쟁요소>

국내시장	원자력발전소 설계	독점 상황
	수화력발전소 설계	민간 엔지니어링 업체와 경쟁관계이나 기술적, 경험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
해외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 수화력발전소 모두 해외 우수 업체와 경쟁관계</li> <li>- 해외수주 실적이 부족하고, 금융 등과 연계되어 진입장벽이 높음.</li> <li>- 일괄발주(턴키)방식 수행경험이 사업 수주의 큰 요소임.</li> </ul>	

## 나. 회사의 현황

### (1) 영업개황

1975년 설립된 이래 원자력, 화력, 수력 및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와 관련 기술개발 및 가동 중인 발전소의 기술지원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발전사업의 핵심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영광3,4호기 원자력발전소로부터 KEDO원자력발전소에 이르기까지 원자력발전소설계업무를 독자 수행하는 과정에서 1,000MWe급 원자력발전소 설계를 한국형 설계로 표준화함으로써 국내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1,400MWe급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설계 기술(APR1400)을 개발해 현재 이를 적용한 신고리 3,4호기와 신울진 1,2호기를 설계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UAE원전 건설에 한전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설계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화력발전부문에서도 500MWe급 화력발전소 설계를 표준화하여 성능 및 경제성을 제고하였으며, 지속적인 성능 및 용량 격상 노력으로 최근 800MWe급 격상용량 화력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소 3,4호기 설

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1,000MWe급 초대용량 표준석탄화력발전소 설계기술의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이를 적용한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삼척화력발전소 1,2호기 및 신보령화력1,2호기 종합설계를 수행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태안화력 9,10호기 종합설계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종합설계(Architect Engineering) 및 원자로계통(NSSS)설계의양대 핵심부문을 모두 설계하는 세계유일의 발전소 설계전문회사로서, 그 동안의 발전소 설계 및 기술개발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송배전 및 변전 사업, 에너지관련사업, 친환경사업 및 고속철도와 신공항 등의 국책사업 건설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으로 업무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발전소 설계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탈황·탈질 등 첨단 대기오염방지설비사업, 에너지절약사업(ESCO), 온실가스저감사업(CDM) 등 환경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2020년 세계 5위권 전력플랜트 분야 메이저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출형·미래형·녹색형 기술 개발 및 기존의 설계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설계·구매·건설 일괄서비스를 제공하는 EPC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2) 시장점유율

당사의 주요 매출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발주하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의 경우 독점사업이므로 시장점유율이 100%이고, 수화력 발전소 설계의 경우 일부 중소규모화력 또는 복합화력발전소 부문에서 민간업체와 경쟁하고 있으며, 대규모 석탄화력/복합화력 발전소 설계는 당사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여 수주에 유리한 실정입니다.

### (3) 시장의 특성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규제 강화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설비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화력발전 설비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율 둔화로 국내 신규발전소 설계물량이 감소되고 신규 발전소 건설시점의 차이로 수주물량이 변동되는 등 당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09년 10월 해외 EPC사업의 본격추진을 통한 매출증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비전 및 중장기 경영계획을 시장여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수주물량 변동에 대한 대책으로는 원자력사업 수주물량 증대를 위해 신고리 3,4호기사업 등 기 계약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향후 후속기 원자력 신규사업을 차질없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총 결집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가동원전 O&M(Operation & Maintenance) 사업, 증기발생기 교체 시공사업 등 신규업무 분야에도 진출하고, 해외 유관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격적으로 해외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 및 복합화력은 기 계약사업의 효과적 수행과 향후 후속기 신규사업을 차질없이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000MW 차세대 석탄화력 및 석탄가스화복합화력의 설계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당진화력 9,10호기(1000MW 2개 호기), 삼척화력 1,2호기(1000MW 2개 호기), 태안IGCC(300MW)의 차세대 발전설비 설계용역, 태안화력 9,10호기(1000MW 2개 호기) 종합설계기술용역 그리고 평택복합화력 2단계종합설계기술용역(900MW급 X 1기)을 잇달아 수주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EPC(설계, 구매, 시공 일괄추진)사업의 수주를 본격 추진하여, 가나 Takoradi Expansion T2 복합화력 EPC 사업 및 오산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하였고, 탈황/탈질 설비기술, 탈질촉매 제조, 발전소 수처리/폐수처리 건설분야를 확대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인 풍력 및 태양광사업과 사업관리 분야인 PM/CM사업 등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주물량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국내 사업의 경우 원자력사업은 한국전력 그룹사에서 발주하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독점으로 수주하고 있으며, 수화력사업은 국내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와 경쟁하고 있지만, 앞선 기술력과 설계경험으로 시장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의 경우 원자력사업은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그룹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주를 추진하고 부문별 중소기업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업개발을 하고 있으며, 화력사업은 회사가 단독 또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그룹사, 민간 건설회사와 협력하여 설계용역 및 EPC 사업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해외사업으로 원자력기술의 본고장인 미국을 비롯하여 중동,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한전을 적극 지원하여 사업비 400억불 규모의 UAE 원전 수주에 성공하였고, 관련사와 공동으로 핀란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등의 추가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화력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축적된 설계 역량과 건설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해외 EPC Turn-key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하여, 신규 발전소 건설 및 기존 발전소 성능개선, EPC사업의 수행체제와 인력 인프라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0년 EPC 매출 4조원, 해외 매출 3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이사의 해임

#### ○ 대표이사 사장 해임의 건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최근 주요약력	예정임기만료일
안승규	1949.03.25	現)한국전력기술 대표이사 사장 前)현대엔지니어링 부회장 前)현대건설 플랜트사업담당 부사장	2015.05.24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해임하여야 할 사유
안승규	정부 방침 및 대주주 요청